

# 군산~서천 잇는 동백대교 27일 개통

국도 4호선 총 연장 3185km  
2380억 투입 10년만에 완공  
양 시·군 우호증진·이익 기대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그동안 금강하굿둑을 이용하던 것과 비교해 거리는 11km(14km→3km), 운행 시간은 25분(30분→5분) 크게 단축된다. <군산시 제공>

금강(鎭江)을 사이에 둔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대교가 27일 오후 5시에 개통된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익산 지방국토관리청)가 국도 4호선(3185km) 동백대교 건설사업을 지난 2008년 착공해 10년 만에 4차로로 신설했다.

총사업비는 2380억원이 투입됐다. 군산시 해방동에서 서천군 장항을 원수리를 연결하는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운행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금강하굿둑을 이용하던 것과 비교하면, 거리는 11km(14km→3km), 운행 시간은 25분(30분→5분) 단축되고, 지역 간 선도로로서의 도로 이용 편의도 증가했다.

특히 안전한 통행을 위해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물론, 습윤 염수 제설 장비 등 자동화 안전시설도 갖췄다.

이 대교 해상구간을 일상관리하게 될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군산시에 긴급을 필

요로 하는 낙하물 제거와 제설 작업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재(염화칼슘, 소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과 서천은 금강을 오가는 뱃길

이 80여 년간 이어오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완공되면서 육로(陸路)를 이용한 왕래가 이뤄지고 있다. 도계(道界)를 떠난 다정한 이웃 지자체

로 자리매김한 양 시군은 협력과 상생 행정협의회를 통해 우호증진과 공동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전주의 첫 마중길 '빛의 거리'로 변신

전주역 앞 백제도로 인도에 경관조명 설치  
연간 1000만명 방문객에 좋은 인상 심어 줘

전주 첫 마중길이 '빛의 거리'로 변신했다.<사진>

전주 첫 마중길은 연간 1000만명이 넘는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주역 앞에 새롭게 꾸민 백제도로를 말한다.

시는 이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빛의 거리'로 운영한다.

빛의 거리는 주변의 나무·시설물과 어울리도록 넝쿨 식물을 이용한 조형물과 LED 조명을 활용해 야간경관을 선사한다.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이곳에 머

무르면 침체한 역사권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앞서 시는 자동차로 가득해 삭막했던 이 구간을 기존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여 인도를 넓히고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조성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첫 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 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전주의 상징 공간"이라며 "빛의 거리는 겨울철 삭막한 거리에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최대 어드벤처 실내 복합놀이시설 조성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40억 들여 내년 9월 준공

정읍시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어드벤처 실내형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조감도>

이 복합놀이시설은 총 40억원이 투입돼 전북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건축 연면적 2280㎡로 조성되는 이 놀이시설은 오는 2019년 9월 완공된다.

이 시설은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15종 28개 모험놀이시설을 비롯해 VR 체험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 이설 공사를 마치고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전동 문화광장 일원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놀이시설을 조성해 사계절 어느 때나 정읍을 찾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찾아가는 이동군청' 성공리 끝마쳐

고창군이 최근 성내면을 끝으로 올해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마무리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이동군청'은 민선 7기 유기상 군수의 시책사업으로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이동군청은 지역 어르신들 비롯해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소외가구의 집수리도 함께 병행했다.

유 군수는 '현장에 답이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행정을 펼쳐며 이동봉사 운영지인 동산 마을회관을 비롯해 성내면 주요기업체 방문, 현안 민원지를 탐방하며 소통행

정을 펼쳤다. 올해 10월부터 추진한 이동군청은 공간·소통 행정을 구현해 행정과 봉사단체의 협업을 통해 나눔과 봉사, 기부 등의 맞춤형 이동행정을 이뤄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 한해 군민이 군수라는 시대적 사명감 속에 진행된 이동군청에 많은 애정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끊임없이 발로 뛰며 귀를 열어 주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군청은 2019년 2월부터 흥덕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남원시, 내년 시내버스 요금 1000원 단일화

남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성인 기준)으로 낮춰 단일화한다.

초·중·고교생은 500원이 적용된다. 135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거리에 따라 2000원까지 내는 현재의 요금제와 비교해 최대 1000원이 싸진다.

그동안 구간별 요금을 차등화해 이용에 불편을 겪게 하고 시내에서 먼 읍·면 주

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금 인하와 구간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은 남원시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크게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익산시, 공영주차장 익산역 동편에 준공

익산시가 KTX 익산역 동편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사진>

공영주차장(90면)은 역 이용객 편의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환승장 동편에 민간 토지를 임대해 조성했다.

열차 이용객은 기존 익산역 서부 주차장(372면)과 함께 이곳도 최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TV와 카드 결제시스템도 구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동편 공영주차장이 주차난에 숨통을 터줄 것"이라며 "서부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열차 이용객은 최대 24시간을 무료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